

최신 디자인 정보의 원천, 디자인 잡지: 산업디자인지 100호 발간

1988

디자인진흥원사

- 제6·7대 조진희 이사장 겸 원장 취임
- 《프랑스 산업디자인전》 및 한불디자인 심포지엄
- 제1회 《한글 티셔츠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 국제산업디자인대회
- 『산업디자인지 100호 발간』
- 해외 농산물 유통 및 포장 세미나 개최

한국 디자인사

- 『한겨레』 창간, 가로쓰기 채택
- 『월간 공예』 창간
- 월간 『디자인 저널』 창간
- 『보고서/보고서』 발간
- 월간 『디자인』, 제1회 디자인/공예평론 및 논문상 시상
- 한국출판미술가협회 창립

한국 사회사

- 예술의전당 1차 개관
- 제6공화국 출범
-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준공
- 88서울올림픽 개최
- 주택 200만호 건설 돌입

전문지라면 일반 대중지와는 다른 전문지로서의 컬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지의 필수적인 기능인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는 가운데 교육적인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디자인』지는 여기 세 잡지하고는 입장이 틀린 것 같습니다. 즉 판매 문제는 제외되고 있으니 타겟에 맞추어 소신껏 제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봅니다.³⁷

지금이야 세계를 하나의 집으로 구축한 인터넷 덕분에 각양각색의 정보가 무수하게 쏟아지지만, 정보가 귀하던 시절 최근 동향이 담긴 고급 정보는 잡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다. 특히 미술, 디자인 등 시각 정보가 우선인 분야의 전문지들은 해외여행과 유학이 자유롭지 않았던 때에 국내외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원천이었다.

이런 디자인 관련 전문지나 정보지마저 전혀 없던 시절인 1970년에는 소수의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디자인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척박함 속에서 1970년 11월 KIDP가 디자인·포장 전문지 『디자인·포장』을 창간해 디자인업계 관계자들에게 최신 정보들을 전달했다. 이 잡지는 1983년 『산업디자인』과 『포장기술』로 분리되어 전문성을 강화한 전문 매체로 발전했다. 이후 『포장기술』은 『포장

세계』로 명칭을 바꾸어 발행되다 한국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바뀌면서 1997년 1월 17일에 폐간됐다.

위에 실린 인용문은 1988년, 『산업디자인』 100호 기념을 발간해 당시 이영혜 월간 『디자인』 발행인과 문신규 『꾸밈』 발행인, 그리고 이성만 『디자인저널』 발행인이 나는 좌담의 일부이다. 좌담 내용을 살펴보면, 1988년까지도 디자인이 대중들에게 소수의 전문 분야로 인식되어 잡지 발행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신껏’ 만들기 위해서는 잡지를 만드는 사람에게 온전히 책임을 맡기고 “외부에서 절대 관여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KIDP는 1999년 9월부터 『산업디자인』지를 디자인전문회사인 안그라픽스에 위탁해 발행 기관의 영향에서 벗어나 디자인 전문 편집장의 책임하에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했다. 2001년 7월호부터는 판형은 물론 제호까지 대폭 바뀌 격월간 『Designdb』로 발행되다가 2004년 1·2월호(통권 188호)를 끝으로 폐간됐다. 이후 『designdb+』(2013), 『d.issue』(디자인이슈리포트/웹진, 2016-) 등 제호가 바뀌며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은 디자인 전문 포털 사이트인 디자인디비닷컴(designdb.com)과 연계해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잡지로 재탄생했다.

한편 『디자인·포장』의 뒤를 이어 1976년에는 인테리어와 디자인, 실내 장식 등을 다루는 월간 『디자인』이 그 행보를 시작해 당시 일반인에게 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외국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첫 호는 국내외 유명한 아파트를 보여주는 ‘디자인·한우리’, 우수 건축을 소개하는 ‘디자인·한아름’ 등으로 구성됐다. 2020년 2월 500호 특집호를 발간한 월간 『디자인』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오랜 연륜을 자랑하는 잡지로, 이영혜 발행인의 독심이 빚어낸 결과다.

1977년에는 디자인 전문 잡지 『꾸밈』이 창간됐다. 건축사 토탈디자인의 문신규 대표가 창간한 이 잡지는 금누리가 편집장을 맡고, 이후 디자이너 안상수가 아트 에디터로 합류하는 등 당대보다 앞선 편집 방식을 보여준 종합 디자인

잡지였다. 건축, 환경, 실내가구, 공예공업, 디자인, 패션, 순수미술 등 디자인 전반을 다루며 독자들에게 분야의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자 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디자인 전문지가 하나둘 늘어나 『시각디자인』(1987), 『디자인 저널』(1988), 『월간공예』(1988), 『디자인비즈니스』(1989), 『코스마』(1989) 등이 창간됐다. 그중 『코스마』는 시각, 제품, 광고 디자인, 실내장식, 사인물, 디스플레이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며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기사와 화보를 통해 실험적이고 선진적인 디자인 문화를 이끌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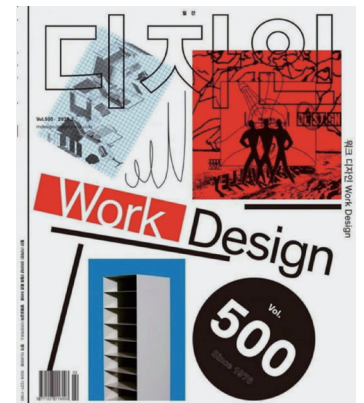
1990년대에는 이런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져 『디자인 신문』(1991), 『임프레스(Impress)』(1995), 『정글』(1996), 『일러스트』(1997), 『컴퓨터 아트』(1997), 『디자인네트』(1997) 등이 창간해 디자인 전문지 전성시대를 방불케 했다. 이들 여러 디자인 전문지들은 『디자인』을 포함해 몇몇 잡지를 제외하고는 오랫동안 발행되지 못했지만, 언론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 관련 종사자들의 지식과 정보에 관한 갈증을 해소시키고, 한편으로는 한국의 전문적인 디자인 기록이 시작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1



2



3

- 1 『디자인·포장』 창간호(1970년 11월)와 『산업디자인』 100호(1988년 10월) 표지
- 2 『산업디자인지』 도서 판매 안내 이미지. 출처: 『산업디자인』 81호(1985), 뒤표지 안쪽
- 3 『월간디자인』 500호 특집 기념호 표지